

주 일 예 배			1부 오전 8시 30분 2부 오전 11시
예배인도 : 신영균 목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 4:24)			
부르심과 화답			
전 주		반 주 자	
예배로 부르심	시 24:3-6	인 도 자	
화 답 송		할렐루야찬양대	
기 원		인 도 자	
찬미와 고백			
† 찬양의 찬송	47	다 같 이	
†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영광의 찬송	17	다 같 이	
말 씬 교 독	47. 시편 105편	다 같 이	
참회의 기도	김현 집사 / 정인석 장로	1 부 / 2 부	
말 씬 선 포			
성 경 봉 독	눅 4:1-13(p. 93)	인 도 자	
찬 양		할렐루야찬양대	
말 씬 선 포	“정체성 혼란과 마귀의 유혹”	신 영 균 목사	
결단의 기도		설 교 자	
감사와 봉헌			
응답의 찬송	452	다 같 이	
봉헌특별찬양		구 역 장	
봉헌의 찬송	51(3)	다 같 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봉헌의 기도		인 도 자	
친교와 나눔			
친 교 의 인 사		다 같 이	
교 회 소 식		인 도 자	
파송과 축도			
† 파송의 찬송	56	다 같 이	
† 오늘의 위탁		인 도 자	
† 축 도		신 영 균 목사	
†표시는 일어나서 예배드리는 순서입니다.			

오후찬양예배 · 수요기도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시 150:6)

오 후 찬 양 예 배	수 요 기 도 회
1. 오늘 오후찬양예배는 드리지 않고, 오후 5시에 경주제일교회당에서 개최되는 종교개혁자들의 생동감 넘치는 신앙을 담은 『THE BOOK』 뮤지컬 관람을 합니다.	인도 신영균 목사 찬송 452 기도 조혜령 집사 말씀 몬 1:1-7(p.351) 봉독 이명애 권사
2. 오후 4시부터 입장이며, 입구에서 입장권과 좌석권을 교환해 주고, 선착순으로 좌석을 배정합니다.	설교 신영균 목사 “빌레몬서 강해” 찬송 315
3. 오후 5시에 문을 닫으며, 그 이후에는 입장 할 수 없습니다.	광고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새벽기도회

월	화	수	목	금	토
읍 28:12-28	읍 29:1-25	요 15:1-27	읍 30:1-15	읍 30:16-31	요 16:1-33

다음 주 예배 담당 안내

1부 기도	2부 기도	오후 기도	수요 기도	수요 성경
박대구 집사	김용출 장로	권사헌신예배	최경숙 집사	이재선 권사

예배 및 모임			교회력
구 분	시 간	장 소	예전색과 성서일과
새 벽 기 도 회	월-토 오전 5시	예루살렘홀	1. 예전색갈: 초록색 2. 성서일과 ■ 시 146 ■ 룻 1:1-18 ■ 히 9:11-14 ■ 막 12:28-34
주 일 낮 1 부	주일 오전 8:30	예루살렘홀	
주 일 낮 2 부	주일 오전 11시	예루살렘홀	
오후찬양예배	주일 오후 2시	예루살렘홀	
수 요 기 도 회	수요 오후 7:00	예루살렘홀	
교회학교예배	주일 오전 9:30	각부서별장소	
청 년 부	주일 오후 2시	비 전 홀	
권찰제자훈련	금요 오전 10시	비 전 홀	

오늘의 말씀

정체성 혼란과 마귀의 유혹(눅 4:1-13)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마 3:17)

예수님의 시험은 정체성에 대한 예수님과 마귀의 차이를 보여 줍니다. 오늘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빠지면 정체성 혼란과 거짓 자아와 허구에 빠지게 됩니다.

1. 마귀는 성과로 정체성을 유지하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4:13은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합니다. 돌들로 떡을 만드는 마술적인 성과를 통해 정체성을 자랑하라고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진 현대인들은 자기 성과, 업적, 공로로 자기 정체성을 인정받을 줄 생각하고 몰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마술적 성과를 자랑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성과 몰입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2. 마귀는 소유로 정체성을 유지하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4:5-7은 “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 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고 합니다. 즉 마귀는 소유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소유로 정체성을 확립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유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3. 마귀는 인기로 정체성을 유지하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4:9-11은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고 합니다. 즉 인기로 자기 정체성을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세상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즉 인기와 자랑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자아상이 아닌 허구입니다.

(맺음) 하나님은 예수님을 공생애 시작 이전부터 ”너는 내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정취 : 포항기독교방송 FM91.5MHz (금요일 오전 5:35)

